

【서평】

Nikhil Pal Singh, *Black is a Country: Race and the Unfinished Struggle for Democracy*.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285 pages.

김 의 영

(Rutgers University)

1990년대 미국사회는 인종의 문제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차별 철폐 조치가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거나 과거에 어렵게 일구어낸 제도적인 장치들이 제거되었다. 한편에서는 인종 차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흑인은 없고 미국인만이 있을 뿐이라는 이 입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등의 논리와는 다르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외면 또는 심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닉힐 팔 싱의 저서는 미국 흑인의 저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여 90년대부터 팽배한 인종적 색맹의 논리에 일침을 가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온 미국 흑인의 역사는 미국의 국가이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편입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중반의 흑인민권운동을 들 수 있다. 흑인민권운동에 대한 보편적인 역사서술에 따르면 이는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사회운동으로써 미국 남부에 남아있던 악습 인종 분리를 철폐하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

건이다. 더 나아가 현재 미국에는 그 어떠한 법적 인종차별도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은 모든 시민이 본래의 출신을 버리고 미국인이 되어 동등하게 살아가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술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가령,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60년대 중반까지라는 시기구분부터 미국 정부 위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0년대 중반이라 함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을 지칭하고 60년대 중반이라 함은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1965년 투표권 법령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11년에 걸쳐 이루어진 흑인들의 투쟁은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되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종결지어졌다는 말이 된다. 또한, 인종분리 철폐를 마치 인종차별의 철폐인양 확대하는 해석 역시 지나친 자축이 아닌가 싶다.

싱은 이런 역사서술이 현실 외면과 역사 왜곡을 유발한다고 보고, 엄밀한 고증과 탄탄한 이론을 기반으로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흑인 투쟁의 연속성을 살핀다. 이 시기구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은 이 기간을 '긴 흑인민권운동기(the long civil rights era)'로 설정한다. 흑인민권운동은 54년부터 65년 사이의 11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대미국사에서 훨씬 더 긴 역사와 파장을 지닌 현상이었다는 주장이다. 54년 이전 기간을 다름으로 해서 싱은 미국 흑인 공론장이 형성되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흑인민권운동의 주체를 흑인으로 재설정한다. 65년 이후의 시기를 다루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흔히 이해되기로는 투표권 법령 이후의 흑인 투쟁은 예외적이고 일탈적이었다. 흑표범당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흑인 운동은 분리주의가 특징이다. 즉, 미국 사회에 편입되길 바라기보다는 미국의 한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자했다. 그들은 미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과의 연계를 추구하며 반인종차별운동의 세계화를 꾀하였다. 싱은 그들의 초국가적인 상상력을 이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함으로써 흑인운동의 역사를 미국의 틀을 넘어서는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읽어낸다. 즉, 60년대 이후의 흑인 운동을 포함하는 것은 이 책의 부수적인 작업이 아닌 핵심 과제이다.

미국을 초월하는 자유에 대한 상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미국 특유의 수사

에 대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의 수호자를 자칭하지 않지만, 미국은 예외다. 서론과 제1장에서 저자가 가장 공들여 진행하는 논의는 역사적으로 국가와 인종의 개념이 맺는 변증법적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미국의 보편주의에 따르면 미국은 시초부터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종문제는 항상 이론과 실제의 간극으로 이해되곤 한다. 인종적 불평등은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상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는 근대국가와 인종이 맺는 변증법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국적과 민족의 사람들이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상은 실제로 존재했다. 영국과 북유럽 이주자들에게 국한되었던 시민권이 점진적으로 아일랜드 이주민, 유대인 이주민, 남유럽과 서유럽 이주민들로 확대되어갔다. 그들은 우선 법적으로 미국인이 되었고 몇 세대가 지나면 문화적으로 미국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융화의 과정의 한계에는 인종이 있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자유는 하얀색이었다. 미국이 그토록 찬양해온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그것도 인종적으로 국한된 소수의 민주주의였다. 흑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부터 노골적으로 배제되었다.

19세기의 노예해방은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적 정치행각의 해방이기도 했다. 노예해방 이전에 흑인은 공공영역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다면, 노예해방 이후 흑인은 적이 되었다. 흑인이 정치와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것을 막아야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탄생시켰다. 19세기말의 차별적이다 못해 무자비한 흑인 탄압과 제도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공교롭게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확장코자 하는 여러 사회운동의 시기이기도 했다. 1890년대의 인민주의운동, 20세기초반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등은 차별의 문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심했다. 대표적인 예로 싱은 노조운동가 유진 뎀스를 인용한다. 당대 최고의 급진적 정치사상가라 할 수 있는 뎀스는 “우리는 흑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소(we have nothing special to offer the Negro)”라는 말로 인종을 넘어서는 연대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인종문제에 대해 가장

진보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인종자유주의마저 흑인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과 구분 짓기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미국이란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평등이 흑인에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오히려 인종차별이야말로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이룩하는데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미국의 현실에서 흑인의 자유에 대한 상상이 미국의 틀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든 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이 책의 2~5장은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냉전기, 그리고 1960년대의 네 시기에 활동한 흑인 지식인의 글과 연설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상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지식인에는 W.E.B. 두보이스, E. 프랭클리 프레지어, 리처드 라이트, 랄프 엘리슨, 랭스턴 휴즈, C.L.R. 제임스, 헤럴드 크루즈, 말콤 엑스가 있다. 이들 중 많은 경우는 미국의 국가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살아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추방당하기도 했으며 그들이 남긴 글도 등한시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상이 이처럼 지식인의 텍스트 분석에 치중한 것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상은 제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긴 흑인민권운동기의 시발점을 흑인 공론장의 형성으로 본다면, 이 새로운 공론장의 형성에 가장 크게 공헌한 주체가 흑인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론장이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구축되는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중을 상상한 두보이스와 같은 지식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물론 1930년대에 흑인 공론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이 과정이 단선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보이스가 흑인 공중을 상상하던 바로 그 시기에 대부분의 젊은 흑인 지식인들은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흑인과 백인 노동자의 단결이야말로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한편으로는 흑인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새로운 유대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인종을 초월하려는 욕구의 발현이었다. 가령, 30년대 지식인의 대표주자 E. 프랭클리 프레지어는 그의 저서 『미국의 흑인가족』에서 핵가족 제도를 통해 흑인이 미국사회의 규범

적인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학설은 오늘날까지 영향력 있는 통념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통념에 따르면 흑인의 사회적인 위치는 자업자득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흑인이 겪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은 흑인 남성의 게으름과 흑인 여성의 문란함에 있다는 통념이다. 프레지어의 저작이 보여주듯이, 30년대의 젊은 흑인 지식인들은 여전히 흑인이 미국사회에 편입되길 바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흑인 억압적인 관념을 재생산한 면모가 있었다.

그 당시 이미 노장이었던 두보이스는 강력하게 흑인 중심적인 사상과 정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는데, 그의 인종중심적인 입장은 젊은 세대들로부터 무시당했다. 여기서 싱이 특히 세밀히 살피는 것은 30년대 사회주의적 상상력이 인종문제를 포괄하는 데 실패한 지점이다. 그 당시 만연했던 속류 마르크스주의적인 접근법은 경제적인 요인만이 사회를 결정짓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두보이스는 후배 학자들과는 다르게 인종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님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보이스가 주장한 흑인 정체성은 본질주의적인 또는 생물학적인 흑인성이 아닌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흑인이란 사회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었고, 흑인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흑인이란 입장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었다. 보다 큰 맥락에서 살핀다면, 30년대 뉴딜정책의 승자는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미국식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행정가들이야말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요소를 장악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장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뉴딜정책 역시 흑인의 복지증진에는 관심이 없었다. 뉴딜정책의 가장 길이 남은 업적이라 할 만한 사회보장연금도 농업과 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켰는데, 이는 흑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기도 했다. 1930년대 말미에는 프레지어 같은 지식인도 흑인중심적인 정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흑인 사회주의자였던 A. 필립 랜돌프는 원래 활동하던 단체로부터 탈퇴하고 흑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 워싱턴으로의 행진운동(MOWM)을 설립했다. 이는 1963의 역사적인 행진의 전

신으로써 1941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되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행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41년에 수천 명의 흑인의 행진이 계획되었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은 흑인 공중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싱은 지적한다. 흑인 공중이라는 것이 실제 사람의 집합이라기보다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개념,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민주주의 활동의 주체로서의 흑인을 상징하는 개념임을 이 사건이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흑인 지식인들의 입장을 추적하는 제3장은 이 책에서 가장 빈약한 장이기도 하다. 랄프 엘리슨과 리처드 라이트가 주교받은 서한은 새롭게 소개되는 사료인 만큼 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나, 전반적으로 1930년대에 비해 덜 역동적인 느낌이 든다. 제3장의 빈약함은 싱이 다루는 시대의 소박함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가장 큰 수확은 활동보다는 흑인 지식인들의 넓어진 안목에 있다고 봐야할 듯하다. 미국이 세계의 무대에서 보다 큰 역할을 맡으며 초대강국으로 발돋움하던 이 시기에 내세운 이념이 '자유'였다던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가지 자유 연설과 대서양 헌장은 미국 내에서 억압받는 흑인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미국 내부의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흑인 지식인들은 인종의 문제가 세계 질서에서 작동하는 보다 거대한 현상임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흑인에게 '비판적 참여'를 권유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리처드 라이트의 다음 말은 비판적 참여가 무엇인지 잘 보여 준다: "만약 이 전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면 우리는 같이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If this is a war for democracy and freedom, then we fight in it, for democracy and freedom)." 간략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와 진정한 자유의 간극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40년대 흑인 지식인들은 그 위협을 감지하면서도 국가의 참전이념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제3장의 요지이다.

제4장은 전쟁 후 냉전체제에서의 흑인 투쟁을 다룬다. 50년대는 무엇보다도 반공산주의 정서가 미국을 지배한 시대였다. 군나르 뤼르달의 『미국의 난제』는 미국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천으로 옹립하면서 미국의 인종문제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르달은 자신의 임무가 백인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흑인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흑인들의 염원이 미국사회에 편입되는 것에 있음을 각인시키고자 했다. 뤼르달의 장밋빛 예측과는 다르게 실제로 50년대는 반공산주의를 빌미로 각종 진보적인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시기였다. 급진적인 흑인 사상가들은 일차적인 표적이 되었다. 두보이스와 폴 로브슨은 여권을 몰수당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았고 C.L.R. 제임스와 클로디아 존슨은 추방당했다. 중도적인 흑인 운동가들은 과감히 이들을 버리고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도 안에서의 타협을 시도했다. 싱은 이 시기를 긴 흑인민권운동기의 암흑기로 보고 있다. 이전 시기에 쌓아온 두터운 흑인 담론 층을 갉아먹고 퇴보했다는 입장이다. 재미있는 것은 30년대 두보이스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프레지어가 50년대에는 두보이스를 끝까지 옹호했다는 사실이다. 프레지어는 미국 흑인이 '과장된 미국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완전히 동화되고자하는 꿈에 현혹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이 시기에 출판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았지만, 50년대도 흑인 지식인들은 주류에서 벗어난 글을 끊임없이 생산해냈다. 자발적인 유배생활 중에 리처드 라이트가 쓴 산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시카고학과 세인트클레어 드레이크와 호리스 케이튼의 연구서 『검은 대도시』, 마르크스주의자 올리버 크롬웰 각스와 사학자 에릭 윌리엄스의 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윌리엄스는 인도주의적인 담론이 애초에 인도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과거의 불평등을 감추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뤼르달식 사고를 비판했다.

제5장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장이다. 무엇보다도 흑표범당의 재해석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싱은 민권운동이 그 결실을 맺던 60년대 중반에 결성된 흑표범당이 그 이전의 흑인 투쟁과는 단절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해석방식을 문제 삼는다. 50년대의 많은 흑인 지식인들이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며 수용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식인과 도시의 억압받는 빈민층 청년들 사이의 괴리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헤럴드 크루즈는 그의 저서 『흑인 지식인의 위기』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궤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독립적인 흑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경향은 1960년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던 시대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범아프리카적인 정서가 미국 흑인 사회에 널리 퍼진 것도 이 시기라고 보면 된다. 미국 흑인의 문제가 민권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콤 엑스의 입장은 이처럼 확장된 안목을 반증한다. 흑표범당은 말콤 엑스, 프란츠 파농, 헤럴드 크루즈와 같은 지식인을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활동했다. 요즘에는 실패한 모반쯤으로 치부되는 흑표범당은 사실 고도로 발달된 정치적인 감각을 보여줬다. 그들은 길거리와 감옥에 있는 어중이떠중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성공했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폭력을 고발하는 데 성공했다. 흑표범당은 70년대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몇 안 되는 흑인 조직 중 하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백인 조직과 협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로 흑표범당은 중국, 알제리, 쿠바, 북한 등과의 독자적인 외교를 꾀하였다. 싱은 흑표범당이 국가의 고유의 상징적 언어를 도용했다고 평가하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상되었다고 본다.

제5장 말미에서 싱은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하는데, 흑표범당이나 민권운동가들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시위에 활용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흑표범당이 충을 들고 나타나면 시민들의 반응은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둘러싸서 구경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흑표범당 당원들이 정말로 게릴라전을 벌인 것이 아니라, 게릴라 연극을 벌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표상의 영역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점은 양극단의 운동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더 나아가 긴 흑인민권운동기의 틀 안에서 봤을 때, 여러 경향들은 딱 부러지게 나뉘지 않는다. 개개인의 활동가가 시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들이 갈구했던 이상이 같았다고 볼 수 있다. 흑표범당이건 민권운동가건 보다 확장



된 공공영역과 그 안에서 흑인의 자기결정권을 추구했던 점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고 협력을 피하기에는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불화가 너무 컸다. 역사는 양쪽이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체제와 타협하는 조직들은 그 타협의 지점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고, 급진적인 조직들은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배워야만 했다. 시행착오와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지만 긴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흑인은 별개의 집단이자 공중으로 자리 잡았다. 긴 투쟁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바는 추상적 평등이 아닌 차이의 장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이 책은 좁게는 흑인민권운동을 새롭게 맥락화하고 넓게는 근대국가 체제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미국흑인의 경험이야말로 근대국가가 갖는 모순과 한계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은, 국가를 넘어선 공동체를 상상하는 정치적 행위가 결국은 국가를 수정하는 효과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다.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그 질문이 여전히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이 책의 부제에서 언급하듯이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체제에서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싱의 저서는 이에 대항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이 작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 역사를 회복하여 널리 알림으로 해서 싱 본인도 지식인의 작업에 참여한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임을 감안했을 때, 이 책의 상당히 선동적인 책이기도 하다. 바로 그 면모 때문에 널리 읽히고 널리 활용되어야 할 책이라 하겠다.